

전남 동부권

동부권 강타한 폭우에 여수 바다도 신음

전복폐사 50만마리까지 늘어

빗물 대량 유입에 떠죽음

남면 등 양식장 20억 손실

남해안에 내린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여수 가두리양식장 양식전복 5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17일 여수시와 국립 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여수시 남면 안도리 어촌계 소속 양식어민 정모(56) 씨 등 9명의 어가에서 양식하고 있던 전복 50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시는 폐사한 전복 예상 피해액만 20억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구소는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 영향으로 남해안 연안에 저염분수가 유입되면서 양식장에 있던 전복이 대량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양식 전복은 여름철 집중호우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해역에서 20psu(실용 염분단



집중 호우가 동부권을 강타한 이후 여수 안도 섬마을의 양식 전복이 집단 폐사, 20억원대의 손실이 나자 여수시 등이 원인규명에 나섰다. (여수시 제공)

위) 이하의 저염분이 2~3일 이상 지속되면 대부분 폐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담수가 직접 유입되는 강 하구에 있는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서 대량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소 측은 "많은 양의 빗물이 양식장으로 유입되면 피조개, 꼬

막, 새꼬막, 바지락 등도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호 태풍 '망온'과 집중호우 영향으로 양식생물이 집단 폐사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지리산 섬진강 들레길 마라톤 (사)녹색중앙회가 주최한 '지리산 들레길 강사랑 녹색관광 마라톤대회'가 17일 오전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일일 섬진강 들레 길에서 1000여 명의 마라토너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광양매실 간암세포 억제”

가능성 연구 보고회

항비만·항당뇨 탁월

매실에 간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등 가능성 성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매실의 가능성연구 및 제품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광양시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매실의 성분분석 및 가능성 연구 ▲매실을 이용한 대량소비가 가능한 가공제품개발 ▲개발 제품의 판매방안 및 상품성 분석 등 3개 과제에 대해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결과 매실은 수분(90%), 당질(9%), 유기산, 무기성분(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 아연)과 함

께 갖가지 기능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주성분은 유기산(주로 구연산)이다.

매실 기능성 물질인 '유기산'은 피로회복·정장작용·식욕부진·해독·항균 활성화, '구연산'은 체내 산성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 노화방지 효과가 있다.

'피크린산'은 간과 신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몸의 해독과 배설을 도와 식중독·배탈·숙취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

또 '나링게닌'(naringenin)은 암세포에서 손상된 DNA복구와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 B1'의 활성 억제에, '루틴'(Rutin)은 혈관질환 치료와 모세혈관 강화, 항염

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능성 연구결과 매실 유기산의 높은 생물학적 유용성이 중성지방과 LDL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항당뇨·항비만과 대장운동능을 촉진해 변비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간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매실을 이용한 엿과 SD분말, 소스류 등 대량소비에 가능한 가공제품이 개발됐다.

소스류는 매실을 이용한 간장·고추장·불고기 소스와 된장파철리를 이용한 샄브샤브 소스, 드레싱 소스 등이 개발됐다.

동부취재본부=박영희기자 pyj4079@

사회적 기업 특화개발

순천시 민·관·학 협약

순천시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사회적 기업 특화형 모델 사업 개발을 위해 민·관·학·기업 공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원한방 약초 피부케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순천대 한의약 연구소(소장 박종철)·(주)지분코스메틱(대표 이법선)·민들레 다문화지킴이 사업단(대표 정현숙)간에 이뤄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순천시는 상품 개발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순천대 한의약 연구소는 상품 개발 연구와 교육을, (주)지분코스메틱은 연구·개발된 상품의 지속적인 생산을, 민들레 다문화지킴이 사업단은 상품판매 및 홍보를 통해 고용 창출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회적 특화형 모델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곡성 옥과농협

사랑나눔 콘서트

곡성 옥과농협은 지난 12일 옥과면 월파관에서 '빛소리오페라단 사랑·희망·나눔 콘서트' 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날 행사에 옥과농협 핵심리더인 영봉·부녀회장과 대의원, 여성조직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철 조합장은 "다양한 문화공연을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제공,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더불어 살아 가는 따뜻하고 신나는 농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여수 건설 노사 임금협상 타결

4.2% 일괄 인상안 가결 노조설립 첫 무분규성과

여수지역 건설 노·사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지역 건설노·사는 지난 16일 흥국체육관에서 찬반투표를 실시, 79.6%의 찬성으로 잠정합의한 임금 4.2% 일괄 인상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총 4071명이 참

여해 ▲찬성 3241명(79.6%) ▲반대 737명(18.1%) ▲무효 28명(0.7%) ▲기권 65명(1.6%)이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2011년 임금협상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건설 노조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분규나 투쟁집회

없이 상반기 내에 임금협상을 타결하는 쾌거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역 건설노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12차례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 2개월여간의 줄다리기를 협상 끝에 지난 6월 30일 임금 4.2% 일괄 정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남원시장 재선거 출마선언 잇따라

예비후보등록 첫날 8명 등록... 열기 후끈

남원시 윤승호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10월 26일 치러지는 재선거에 도전하는 입지자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 15일 남원 선관위에는 강준성, 김영권, 김재성, 김정태, 이환주, 임근상, 황의돈, 최중근씨 등 8명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자들은 등록을 마친 후 만인의총과 시청회의실에서 30분 간격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등 열전에 돌입했다.

전 남원시 부시장 출신인 강준성(54)씨는 "남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남원비전을 갈망하는 시민과 희망을 함께 나누기

위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 출마표를 던졌다"며 "지역발전이란 큰 틀에서 함께 소통하며 미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기적 안목을 가진 시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남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국장을 역임한 이환주(51)씨는 "지방의회 출범 이후 15년 동안 시장과 국회의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며 "정치 뿌리가 같고, 올바른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때가 넘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 지방자치위원회 부

위원장인 김재성(66)씨는 "시정운영에 정당공천제 취지를 반영하겠다"며 "당이 수렴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시장 한 사람의 의지에 관계없이 지속하도록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이사관 출신인 김영권(64)씨는 "오랫동안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에서 터득한 경험과 전문성, 앞서 내다보는 정보적 감각과 추진력, 업무과정에서 형성된 전방위적 인적 네트워크 등 저민이 가진 강점이 남원에 필요하다"며 "35년간 정부 각 부처를 돌아다보며 대기업과의 부단한 정보교류와 세계 각국의 정세를 취합하는 등 전문적 분석력을 가진 저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전북

정읍 북면 송아지 경매장 무허가 시설로 폐쇄 위기

매월 200마리 이상 거래

한우농가 피해 우려

한 달에 한차례 송아지 경매가 열리는 정읍시 북면 한교리의 한우경매장이 무허가 시설이어서 폐쇄 위기에 놓였다.

17일 정읍시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감사에서 전북도 감사반이 "정읍 한우협회가 운영하는 북면 한우경매장이 무허가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폐쇄하라"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도 지난달 시정질문에서 "송아지 경매가 열리는 북면경매장은 법적 근거가 없이 개설된 무허가 시설"이라며 지역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법적으로 운영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읍에는 순정축협에서 월 2회 운영하는 정우면 우산리 경매장(2007년 12월 개장)과 함께 정읍 한우협회 주관으로 북면경매장에서 송

아지 거래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북면경매장은 1000여명의 조합원을 둔 정읍 한우협회가 2004년부터 매월 7일 200여마리의 송아지를 경매하지만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한다'는 축산법에 따라 무허가 시설로 분류돼 폐쇄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읍시와 정읍한우협회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지역 한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순정축협의 경매장을 공동 이용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제기됐지만, 정읍 한우협회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순정축협 측은 지역 한우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우협회가 경매장 공동사용을 요청하면 조합원의 의견을 들은 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취재본부=백기섭기자 parkks@

전북 7월 부과 재산세 최고는 옹포관광개발 2억5300만원

전북도가 7월 부과한 정기본 재산세 최고 과세 대상은 '옹포관광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올해 재산세 중 세금 2억5300만원을 익산의 골프장 운영체제인 옹포관광개발에 부과해 최고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무주에 있는 부영 덕유산리조트(2억5200만원)와 전주

의 롯데쇼핑(1억81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완산구 효자동 D 아파트가 가구당 최고 1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가 이번엔 부과한 재산세는 총 788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3% 줄었다. 건축물은 527억원으로 전년보다 9.8% 늘었고 주택은 261억원으로 18% 줄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불법 멸치잡이 20일~내달 19일까지 합동 단속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멸치잡이가 시작됨에 따라 전북도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불법 멸치잡이 합동 단속을 벌인다.

도는 서해어업관리단, 군산해경 등과 함께 멸치어장이 형성되는 군산·부안해역에 어업지도선과 해경 합동 등을 고경 배치하고 육상에도 불법 유통을 적발하

는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상습적인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어구와 선박을 압수키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조업구역 위반 ▲부정어구 사용 ▲불법 어획물의 수집 및 운반·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국악인 김성녀 초빙 새만금 아카데미 제5강좌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제5강좌가 21일 오후 3시 군산시청 새만금 아카데미홀(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중앙대 교수이자 국악인인 김성녀씨를 초청해 '우리소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민요, 우리가락, 판소리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선조들이 삶의

한을 흥으로 풀고 춤과 노래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했던 민요 등 국악을 배워본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는 그동안 박석무 단산연구소 이사장, 이홍기 방송인, 신달자 시인, 김호철 교수를 초빙해 다양한 강의로 생활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기섭기자 parkks@

정읍시 콩·선비음식 등 커뮤니티 사업 선정

정읍시는 지역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CB) 시범사업으로 선비 음식문화 육성

과 콩·청국장 사업을 선정했다. 산내면 달고면 마을회회는 지역에서 전해지는 선비 음식과 선비문화를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

고 체험관광에 나서며, 감곡면 풍촌 주민공동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메주와 청국장을 생산해 판매하게 된다. 시는 이들 공동체에 4500만원씩을 지원하고 공공생활 지원 등의 CB사업을 발굴해 도울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25일부터 여름방학 수영교실 운영

순창군은 수영인구의 저변 확대와 학업으로 소홀했던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달간 여름방학 수영교실을 운영한다.

수영교실은 운영 시간별로 초

급, 중급반 등 4개반으로 운영된다. 반별 모집인원은 20명씩 총 80명이다. 수영장 월 이용료는 ▲유아 1만6500원 ▲초등학생 3만 3000원 ▲청소년 3만8500원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지난 16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11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에서 비보이들이 군무를 추고 있다. /연합뉴스